

한일미래포럼 제118회 미디어포럼
2014년 11월 1일 (토요일)

2015년 한일수교 50주년을 향한 한일 대학생 국제회의

작성일 2014년 11월
작성자 정현옥

사회 임기훈: 한일경제협회의 이종훈, 주한 일본대사관의 사토 마사루, 우치야마 일본경제신문 서울지국장, 카이세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님께서 자리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변호사로 현재는 법무관으로 있는 임기훈입니다. 오늘 포럼은 사단법인 한일미래포럼, 한일경제협회, 한일미래회의가 주최하며, 동북아 역사재단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개회사 양기호: 안녕하십니까. 바쁜 주말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염대표님이 바쁘셔서 함께 하지 못해 제가 대신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해주신 귀빈 여러분, 일본에서 와주신 일본학생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신 학생분들 감사합니다. 내년이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입니다. 사람으로 생각하면 50년이라 하면 원숙함, 관용, 온대함, 비전을 가지는 것이 성숙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2015년, 50주년의 길목에서 21세기 주역인 미래회의가 공동으로 청소년들이 어떻게 미래를 만들어갈지 의견을 나누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한일관계가 바람직하게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새로 주역으로 자라날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며 더 나은 동북아 미래를 논의하는 상당히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준비해주신 많은 분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개회사 이종훈: 반갑습니다. 아마 여기 와주신 발표자와 대부분 사람들이 미래학생회의에 가입한 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도 친숙한 얼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은 50주년을 앞둔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와 일본이 국교정상화를 시작한 시점에는 한일관계가 극히 희박한 관계였습니다만, 50년이 지난 이 때에는 엄청난 교류가 허가되어 경제는 천억 달러에 달하며 그 외에도 문화, 관광이 발전해왔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전에는 한일 간에 수직적 관계였습니다만 점차 수평적 관계로 변화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50년은 대등한 한일관계로서 어떻게 하면 협력적 관계로 나아가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일관계를 발전적으로 논하는 이 자리가 매우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나 역사인식 등 현재 한일관계가 그리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일 간에 부분적으로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다른 나라의 경우라면 상당히 크게 충돌할 텐데, 한일관계에서는 그런 점이 안 느껴집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한일이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같이 하는 토대 위에서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갈등이 있어도 큰 틀에서는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EU를 만들어 8개 국가가 하나의 단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듬으로 1차, 2차 대전을 극복하고, 평화의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여 그 위에서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교하여 우리 갈 길은 참 멀지 않은가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우리의 목표인 공동체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연구의 대상

이자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학생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열정과 순수함인 것 같습니다. 순수함과 열정을 가지고 한일관계를 발전적 관계로 어떻게 만들어갈지 열린 토론을 통해 이야기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축사 사토 마사루: 안녕하세요. 자리해주신 모든 여러분, 참가를 기대했으나 오지 못하신 벳쇼 대사관의 메시지를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열리는 한일뉴스포럼, 대학생 미래회의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미래회의의 젊은 대학생들이 한일관계 속의 대학생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하고, 이종훈님으로부터 2015년 대안과 전망이라는 테마로 말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주제처럼 내년은 50주년 맞이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한일관계에는 여러 현안이 있고 양국 관계를 어렵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편 한일관계가 어려운 가운데 9월 14일에 열린 한일축제에서는 5만 명의 많은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 800명 정도가 볼란티어로 참여했지요. 이렇듯 한국과 일본은 찬바람이 부는 상황에서도 이웃국가로써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교류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교류가 따뜻한 지지가 되어 한일양국 관계가 발전해 나가리라 기대합니다. 오늘 이 토론하는 자리가 바로 한일관계의 큰 유대가 되리라 생각하며,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역할을 크게 기대합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크게 감사드리며,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기원합니다. 주한일본대사 벳쇼 고로.

사회: 오늘의 주제는 2015년 한일수교 50주년을 향한 한일 대학생 국제회의입니다. 1부에서는 패널들이 한일관계의 미래와 대학생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패널토론을 하고, 2부에서는 발표와 지정토론, 자유토론이 이뤄지겠습니다. 패널로 이화여대 심리학과 김태희, 오사카대 인문과학부 츠보가미 료헤이, 추오대학 종합경제학부 오카베 나기사, 서울대 자율전공 강현민,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김지형, 리츠메이칸 문학부 타케우치 나오타카님이 자리해주셨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오카베: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JKSFF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JKSFF의 제10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인 오카베 나기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포럼에서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대전에서 열린 제9회 한일학생미래회의가 개최되어 앞으로의 50년을 위한 미래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JKSFF는 Japan, Korea, Student, Future, Forum의 약자입니다. 전 멤버가 한일교류캠프의 참가자였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본의 고등학생들이 교류캠프에 참가하여 5일간의 한국인과의 친분교류를 경험했는데,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교류가 이 5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형태가 된 것이 2006년입니다. 한국의 KJSFF와의 교류를 목표로 JKSFF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칸사이 지방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JKSFF West가 창립되었습니다. JKSFF는 고등학생 1학년부터 대학교 3학년까지 약50명, JKSFF West에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 약20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단체는 1년에 한번씩 공동 스터디를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JKSFF의 활동은 월2회 열리는 정례회의를 중심으로 한국역사/정치 연구회, 정기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한국어 스터디, 한국 영화 감상회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한일 교류단체와의 연대를 도모하여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는 교류회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외부강사를 초청한 강연회나 다양한 주제로 토론, 필드워크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시하고 있는 KJSFF와의 교류에 대해서입니다. KJSFF와 JKSFF는 매해 조직 위원회를 만들어 한일학생미래회의의 기획과 운영을 약10개월간 준비합니다. 4월부터 스카이프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며, 당일에는 함께 모여 그때의 테마에 대해 토론합니다. 관광, 스포츠체험 등 흥미로운 기획이 담겨있는 4박 5일의 행사입니다. 그리고 매해 1회 연말의 공동합숙(교류캠프)에서는 한국으로 일본 학생들이 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스카이프를 통한 교류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단체에게 가장 큰 행사인 한일학생미래회의는 지금까지 총 9회 개최되었습니다. 교류캠프에서 미처 다 말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학생미래회의 특징은 기획부터 운영 등을 전부 학생들이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학생들이 스카이프를 통해 회의하여, 학생미래회의 본방을 위해 수개월에 걸쳐 교류하기 때문에, 교류캠프 때보다 더 알찬 준비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양국 학생이 협력하여 함께 행사를 준비하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8월에 대전에서 열린 제9회 한일학생미래회의에서는 한일국교정상화50년을 테마로 양국의 학생들이 모여 뜨거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과거 50년간의 한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50년을 위한 전망과 기대 등에 대해 양국 학생들이 의견을 나누며 보다 깊은 이해를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일국교정상화50주년을 마주하며 이런 50년이 되었으면 좋겠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면 좋겠어.'라는 희망을 담아 실시하였습니다.

행사 1일째는 철야로 토론하고, 2일째는 발표와 팀 토론 5차례, 그리고 스포츠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3일째는 토론한 내용을 한일국민헌장으로 정리하여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4일째에는 대전 관광을 즐기고 5일째에는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인천공항에서 헤어졌습니다.

이러한 한일학생미래회의는 매년 각종 단체의 주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는 주한 일본대사 간담회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활동을 호프, 스텝, 점프 세단계로 나누어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처음으로 친구가 생긴 것이 호프, 한국에 대해 배워가는 것이 스텝, 이것이 저희의 주 활동입니다. 그리고 미래회의는 청소년의 한일교류의 큰 무대로 점프라고 칭합니다. 모두 한국의 친구가 좋고, 앞으로도 좋은 교류관계를 맺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미래회의 활동을 중요하게 여기며, 서로의 지역을 안내하는 등 즐겁게 활동 중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김태희: KJSFF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태희라고 합니다. 간단히 단체소개를 정리하고 주 활동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KJSFF는 앞서 소개해준 바와 같이 한일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한일학생미래회의는 양국의 학생들이 모여 우리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미래회의는 2006년 한일고교생 교류캠프 참가자가 모여 한일미래회의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 지원이 더해져 JKSFF West가 출범하였습니다. 세 단체는 고교캠프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양국 학생들이 하나의 테마로 토론하는 포럼형식의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한일학생미래회의는 매년 양국을 번갈아 가며 개최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관점에서 한일관계를 이해하고자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일국교정상화5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일교류, 문화, 미디어 등 다양한 관점에서 과거 50년을 살피고, 앞으로 소망하는 50년을 위해 극복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과 2014년의 주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한일관계가 갖는 한계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류는 해를 거듭해 발전하지만,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입니다. 먼저 한 가지는 언어문제입니다. 한 나라의 언어는 국가의 역사, 문화, 민족 의식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상대를 이해하는 좋은 수단 이며, 더 심화된 사고와 교류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세 단체는 언어로 인한 어려 움을 겪고 있습니다. 언어 문제가 한일 교류의 질적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역사인식문제입니다. 비단 청소년뿐 아니라 한일은 역사문제를 해결치 못하고 피상 적 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물림되는 역사문제는 청소년 교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과 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 없이 미래를 지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한일의 학생간 교류도 그 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목도모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 관계보다 는 피상적 교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나 경제에 대해서는 학생활동이 이렇다 할 성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차원에서 관심이 있는 소수의 사람에 의해 진행 되어, 구체적인 내용이나 의의가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일교류는 초기 목적의식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착된 한일관계 현안을 파악하고, 대학생다운 생각으로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이러한 노력과 공리가 소수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발표 츠보가미: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단체소개와 오늘 내용에 대해 간단히 소개 해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학생교류의 방향과 대학생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젊은 학생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대학생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고 제2부에서 함께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단체 내부, 외부 방향으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부차원에서는 저희 단체가 10년 동안 능동적이고 심화된 교류가 가능해졌다고 생각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불완전한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상대에 대해 알아가는 자세를 갖추 게 되었습니다. 언어나 사회정세 등 폭넓게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 우리 학생들이 본심으로 느낀 것을 솔직히 말할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학생이므로 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있으니, 용기를 내어 더욱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1회성이 아니라 정기적, 지속적인 교류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일고교교류캠프와 학생미래회의에는 정기적, 지속적이라 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단체의 목적과 기본을 다시 생각하며 활동해야 하 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학생 단체이므로 학생다운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 관계는 정치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더욱이 정치적 악화 등을 단체 활동에 반영하거나 답 습, 투영할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좋다고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지만, 우리 학생은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을 살려 유연하고 독창적으로 사회 에 공헌하는 자세가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단체 외부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단체의 활동을 외부에 더 욱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소개에서 말씀드린 듯이 저희는 고교 OB, OG단체로 시작했습니다. 꼭 외부에 오픈되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외부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한일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지리라 기대합니다. 또, 한일 교류 기회를 늘 려가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현재 소속 회원을 늘리는 것도 좋고, 다양한 단체와 협력하고 교류하는 등 많은 사람들의 참석기회를 늘려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키워드는 2가지입니다. '우리'와 '지속적'입니다. 한일교류는 '나와 너'가 아니라 '우 리'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으로써의 활동을 이

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직면한 문제를 보다 더 솔직하게 이야기 해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학생이므로'라는 말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한일교류를 넓혀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김지형: 저는 한일학생교류단체의 한계 중 하나인 언어문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10년간 단체 활동을 하면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이 언어문제입니다. 언어능력이 교류의 필수조건은 아니나, 본 단체를 비롯하여 대부분 단체가 언어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한국 회원이 통번역을 모두 맡고 있으며, 공용어로 영어를 쓰자는 제안도 있으나 여전히 언어가 벽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 통역인이 없고 언어 능력이 있는 학생이 통번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학생 간 불균형도 일어납니다. 특히 공용어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단체의 경우 일본어가 주가 되어 일어를 못하는 학생이 소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어를 사용해도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기 힘듭니다. 이런 현상은 보다 깊이 있는 의견 교류를 제한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언어문제에 대해, 양국의 제2외국어 교육의 차이가 한국학생과 일본학생의 언어능력의 차이를 만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고등교육에서 제2외국어를 채택해야 하며 그 중에 일본어 비중이 가장 큼니다. 그러나 일본은 고등교육과정에서 제2외국어가 필수가 아니며 배우는 사람 수도 비교적 적습니다. 한국에서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택하는 비율이 52.3%인 것에 반해 일본에서 한국어를 채택하는 경우는 전체 학교에서 4%에 그쳐 그 차이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어소통의 불균형, 교육 불균형, 학생들의 자발적인 노력 부족 등으로 언어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상대국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어뿐만 아니라 그 나라 사회문화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언어소통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한 자발적 스터디와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발표 타케우치: 안녕하세요. 현재 JKSFF의 회장을 맡고 있는 타케우치 나오타카입니다. 언어문제는 학생교류 안에서도 학생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제3자 통역이 없는 단체에서 특히 언어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미래회의 등 레벨이 높은 토론, 회의에서는 더욱 언어능력이 요구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한국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언어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에서도 한국학생 쪽이 일본어에 유창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일본 학생 중에는 간단한 인사조차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일관계에 대한 학습능력이나 제도가 관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래회의의 경우, 한국학생이 통역을 하면서 참가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통역하는 학생과 하지 않는 학생 사이에서 역할의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통역을 하는 학생은 의견을 생각하는 등 여유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영어 등 제3언어로 이야기 하면 좋을까요. 이것은 10여년에 걸친 친목도모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의 교류를 심화시키기 위해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한일교류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언어 장벽으로 고민하거나 막혔던 것에 대해 2부에서 함께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지금까지의 발표에 대해 패널들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로의 발표에 대해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김태희: 오사카대 료헤이가 한일학생 교류에 대해 이야기 해주었습니다만, 나와 너가 아닌 우리에게 대해 강조하였는데 차이가 여전히 많이 존재합니다. 차이를 뭉뚱그려 하나로 묶기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장애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재하는 차이를 인정하고, 그 위에서 현안에 대해 논해가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츠보가미: 한일관계 속에 여전히 많은 과제가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 안에서 양국의 장래를 위해 협력해가야 하는데, 각국의 입장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한일이 함께 어떻게 진행해 갈지 그 스탠스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 문제나 과거 문제 인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의 문제로서 인식하여 다음으로 연계해갈 때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6회 학생미래회의에서 역사인식에 대해 논의하면서 공동의 역사 교과서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한일 간에 역사문제로 상당한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양국의 학생이 함께 고민하고 하나의 교과서를 만들자는 활동은 매우 의미 크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라는 스탠스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향해 발전해 가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희: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향후 한일이 지향해야 할 관계에서의 이상적인 자세라는 것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형: 리츠메이칸대학의 타케우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언어문제 발생하게 된 것이 10년간 친목을 다져왔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하셨지만, 이것은 10년간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이 계속 인식되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타케우치: 이 문제는 10년간 계속 지적된 문제입니다. 다시말하면 10년간 친목과 함께 높은 수준의 교류가 이뤄졌기 때문에 더욱 커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해결에 대해서는, 지금은 JKSFF안에서도 방학을 이용하여 한 달 동안 유학하거나 수업을 수강하는 등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이 많아졌습니다. 활동 기획에서도 한국어 공부를 도입하는 등, 한국어에 대해 더욱 알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의 차이를 매우는 것은 가능하여도 동등해 지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래회의에 대해서도 한국 쪽의 도움을 받거나 영어를 사용하는 등 별도의 해결책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단체에서도 한국어 수준을 끌어 올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카베: 단체 소개했던 오카베입니다. 저도 학생미래회의의 위원장을 맡았었기 때문에 이 언어문제에 대해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래회의에서는 일본 측의 한국어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과 앞으로 토론을 위해서 언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 JKSFF멤버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가야 할지에 대해 의논하였습니다. 먼저

한국분과의 차이점으로, 일본 학생의 한국에 대한 흥미나 좋아하는 이유가 언어습득능력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 측의 일본어 능력이 매우 높아서 현실적으로 일본인 학생이 지금부터 노력해도 그 레벨에 닿지 않는 게 아닐까 걱정됩니다. 한국과 교류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언어 습득과 한국에 대한 관심이 일본인 사이에서는 꽤 별도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KJSFF의 이야기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입장이며 그 지적을 개선해가고 싶다는 것이 저희의 마음이나, 언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어 절충하는 등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JSFF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 되고 있음을 말씀 드렸습시다만, 어학 인식에 대한 의견이나 희망이 있다면 꼭 듣고 싶습니다.

사회자: 이것에 대해 질문이나 코멘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배우고 있는 외국어는 무엇입니까?

츠보가미: 지금까지는 역시 서구 언어였고, 최근에는 중국어가 인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류가 큰 인기일 때 일시적으로 한국어 인기가 높았으나, 현재는 중국어 쪽이 인기가 많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제가 1년 간 한국에서 유학하면서 느낀 것인데, 당시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수업에서 교수님이 한국 학생에서 영어는 당연하고 아시아언어를 한 가지 더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유학 오기 전부터 한국인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어나 중국어를 잘하는 한국 학생들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그것이 매우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에 대해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제2외국어가 대학에서는 필수이지만, 실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학생의 비율은 낮고 영어가 되면 괜찮다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본과 한국 사이에 외국어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 느낀 사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역시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일본에서 한국어를 배우지 않는 이유이겠지요. 언어문제를 향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선배가 몽골 여자 친구를 사귀어 적 있습니다. 그 선배가 당연히 몽골 말을 못했었는데 6개월 지나니까 몽골사람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죠. 애정을 전제로 그 나라말을 많이 사용하고 관심을 갖고 차차 습득해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한국 친구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일본 친구들이 애정이나 관심을 가져가면 언어문제는 자연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어서 3분 정도 대학생의 역할, 그리고 다른 단체와의 교류에 대해 패널에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문 드립니다. KJSFF에서는 한국의 다른 한일교류단체와 함께 하는 교류활동이 있습니까?

김태희: 여타 다른 한일교류단체와 현재 교류하는 것은 없으나, 현 회장이 다른 단체와 교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통적 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수많은 단체가 있으니 다른 단체와 교류하면서 심도 있는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JKSFF의 경우 연2회 타 단체와 교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때 다른 단체의 반응이 어땠는지, 그리고 자신의 소감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카베: 한일고교교류캠프 참가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다른 단체와 다른 점입니다. 한일 교류를 하는 이상 사회에 넓혀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 단체의 경우 애초에 캠프 참가자만이라는 한계가 있어 도리어 가능성을 좁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는 캠프가 재미있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JKSFF에 참여하였고 캠프참가자들의 단체라는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앞으로 확산시켜 가는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면 JKSFF에는 다소 한계가 있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JKSFF나 타 단체와의 대화에서 잘 나오는 말이 역시 '발신'이 화제가 됩니다.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활동에 대해 게시하고 있습니다만, 애초에 한일관계에 흥미가 있는 사람이 보러 오기 때문에 흥미가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확산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일관계에 별로 관계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발신해갈 수 있을지가 앞으로 저희 단체가 직면한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자: 이어서 양국의 역사인식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강현민: 서울대 자율전공의 강현민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의식 문제를 통한 대학생의 교류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세계2차 주범인 독일과 일본 양국은 패전했지만, 과거사에 대한 태도가 달랐습니다. 독일의 경우 지난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과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독일 수상이 폴란드 국민 앞에서 무릎 꿇은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일본은 박정희 정부 때의 한일국교정상화로 정산하는 등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식민지와 한국전쟁 등으로 한국의 인프라는 상당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국가재건에 필요한 자금을 모을 뿐, 진심 어린 사죄는 없었습니다. 독일 교과서에서는 세계2차 대전에 대한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틀러는 이미 1939년 유대인을 말살할 결심을 밝혔다'. 이렇듯 나치정권을 철저하게 비판하고, 전쟁의 무서움을 국민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고등교육에서 주3회 역사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사교육을 통해 초, 중, 고 단계적으로 심화된 역사교육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임나일본부설, 독도강점 등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한 교과서에서는 일본의 지배가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 노력하였다고 설명하는 등 과거사를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역사문제에 그치지 않고, 영토문제에까지 이어져 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일의 이러한 역사교육은 대학생이 되어서도 양국이 다른 가치관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대학생은 복잡한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우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국교정상화50주년을 맞아 양국의 관점의 차이를 인지해야 합니다. 대학생으로서 고착된 한일양국의 역사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타케우치: 이런 학생단체에서 이야기하기 힘든 문제로 역사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역사의식, 역사교육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양국의 역사인식에는 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기관, 정부 등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만, 역시 학생 간에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미래회의에서도 역사문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테마별로 50년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으나, 세계대전에 대한 이야기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교육

차이로 인해 역사 인식 차이가 있지만, 어떤 것이 올바른지 학생으로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습니다. 옳은 역사 인식이란 이라는 점은 학생들이 다뤄야 하면서도 다루기 힘든 주제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역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워도 함께 논의해 가는 것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후에 다양한 논의가 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학생이므로 자유롭게 역사문제에 대해 이야기 가능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평소에 힘들었던 점에 대해 여기서는 모두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북한 문제일수록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질문 코멘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김태희: 한국에서는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일본에서는 국내 역사문제, 영토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분위기 등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츠보가미: 먼저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쪽 단체 내에서 역사공부를 하려는 시도는 있었습시다만, 한국의 기술과 일본의 기술이 양적으로 매우 달라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학습량은 양적으로 많지 않고 한국과 비교하여 양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한 의식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최근 사회인들 가운데 한국 측으로부터 일본교과서에 대한 비판이 있고, 그 때문에 일본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는 경우 있습니다. 영토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은 일본의 입장이 있고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점은 일본의 학생들이 정부의 견해, 보도의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드린 것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식이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학생단체에서 필요한 것은 정부가 말하는 내용도 알아야하지만, 학생 자신이 한일의 고착된 문제에 대해 건설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김태희: 역사교육은 자타국의 의식과 가치관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한국 등 식민 지배를 받은 국가와의 관계에서 큰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학생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오카베: 한일교류단체 소속되어 있고 한국을 좋아해서 역사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형무소 등에 가보면 한국인이 느끼는 심각성이 일본인에게는 역시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어째서 부족한가 생각해 보면, 일본은 역시 식민 지배를 한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역시 당한 쪽이 잊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에서 일본 쪽에서 정부차원부터 민간차원까지 한국은 가장 가까운 나라이므로 협력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면, 일본인도 더욱 제대로 공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가해자인 만큼 공부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에서 일본에 대해 일본이 싫어질 만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교육은 진실을 전달하는 역할도 있으며 앞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고, 한일관계가 악화될만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므로 그 점에 대해 한일이 모두 제대로 지적하고 가르쳐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사토 마사루 주한일본대사관님이 읽어달라고 부탁하신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3월 14일 참의원 예산의회에서의 아베 총리의 대담입니다.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무라야마 담화, 고이즈미 담화를 발표했다. 아베 내각은 이러한 담화들을 포함하여 역사인식에 대한 전체 의견을 계승하고 있다. 위안부문제에 대해서는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매우 가슴이 아프다. 이점에 대한 마음은 역대 총리와 다를 바가 없다. 예로 소위 고노 담화가 있다. 스가와 관방장관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내용을 수정할 계획은 없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역사에 대해 우리는 겸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사문제는 정치, 외교문제화해서는 안 된다. 역사의 연구는 지식인 전문가의 손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입니다. 그럼 제1세션을 마치며 패널들의 정리코멘트 부탁드립니다.

강형민: 한일은 장기적인 교류를 목표로 해야 하며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에 대한 이해를 위해 문화와 언어를 배울 기회를 늘리고, 젊은 세대에 초점을 맞춰 홍보활동을 늘려야 합니다. 또한 학교 간 자매결연 등 정기적 교류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 간 교류 기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친밀하게 느끼게 하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한일관계를 심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교과서 이상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궁리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타국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것은 애정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까지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선진국인 일본에 대해 배우려는 시도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중국의 부상과 함께 일본에 대해 배우려는 사람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중국어를 배우는 학생들도 한일관계악화와 관련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기본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일 간 파트너 관계를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타케우치: 먼저, 한일교류는 미디어나 정부라는 측면에서는 얼어붙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학생교류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언어문제나 역사문제 등은 특별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큰 차이가 있겠지만 양국이 같은 스탠스로 대응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상대의 이런 점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애정을 가지고 함께 헤쳐 나간다는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나 교육 등에 대해서도 우리 대학생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질 토론에서도 여러분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의견을 교환하고 싶습니다.

사회자: 이로써 제1세션을 마치겠습니다. 30분 휴식 후 제2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세션을 시작합니다.

이종훈: 여러분의 의견, 참으로 수준이 높고 의미가 큰 교류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두 가지 언어문제와 역사문제라는 화제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서로 바라봐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요컨대 우리가 언어를 한국입장에서는 일본어를 배워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더 컸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2000년 이후의 질서는 구미가 리드하는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그리고 유럽 재정위기 이후 세계를 지도하는 구미의 힘은 이제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동아시아의 역할이 매우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한국에 있어서 일본의 인식, 일본에서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변화할 것입니다. 구체적 필요와 그에 더해 한일이 힘을 합하여 동아시아의 중심으로 끌여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인식은 간단히 생기지 않겠으나, 이를 인식하면 한국에 대한 일본인의 관심은 월등히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이 갭의 문제는 시간과 더불어 급격히 좁혀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사인식의 문제도 한일학생미래회의에 부탁하고 싶은 점은 여러분은 아직 학생이라는 점입니다. 순수, 정열이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큰 특징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어른들은 이해관계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생인 여러분은 아직 그것이 없고, 좀 더 순수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까 교과서를 함께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는데 참 좋았습니다. 저는 적어도 회의를 할 때 양편의 견해를 충실히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더 옳은가에 대해 순수하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지요. 일본과 독일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일본과 독일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은 당시 전쟁을 치른 세력과 현재 세력이 완전히 다르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추궁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이 있으며, 그 점이 역사적 배경에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다만, 독일에 경우 역사적 청산을 했기 때문에 독일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일본은 그것이 되지 않아 동아시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를 제대로 청산한 후에야 일본도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문제와 영토문제는 매우 중요하지만 집착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수평적 관계가 되면서 한일관계는 상당히 서로 손해 보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산업부문에서는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평적 협력을 확대시키고 제3국 진출을 확대시켜나가면 서로 윈-윈 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일미래회의가 어떻게 수평적으로 협력하여 윈-윈 하는 관계를 가질 수 있겠는가 생각하면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역사, 영토문제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도록 노력하면서도 여기에 너무 빠지지 않도록 하면서 건설적인 관계형성과 같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한일 고교 캠프에서 보인 우정을 바탕으로 이렇게 수준 높은 의논을 이어나가면 양국관계는 더욱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회자: 사토 마사루 문화원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본 포럼에 대한 감상과 아베 총리의 인사를 읽어달라고 부탁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토: 제1세션의 토론을 들으며 매우 감동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에는 국제교류에 대한 이러한 자리에 참가한 적이 없었고, 여러분들이 같은 방향을 보며 세계에 공헌하는 글로벌 인재들이라는 것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외무성의 사람으로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외무성에는 40개국에 대한 언어 전문가가 있는데 역시 일로 하면 매우 유창해집니다. 한국에 흥미가 있다는 것을 살려 흥미를 자신의 커리어로 이어서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한국어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발신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디만,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도 확산시켜간다는 것이었는데 오늘도 기자 분들이 와있기도 하고 기사를 부탁드립니다 등 꼭 여러분 들이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베 총리의 인사에 대해서는, 한일은 서로 매우 닮아있어서 말도 닮아서 거기서 안주하면 문화 등이 비슷하다고 생각해버립니다. 그러나 다르다는 것을 다시 인

식하자는 의미로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정치의 구조가 달라서 한국은 대통령제, 일본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굉장히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중시되어있어서, 여러 나라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하여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러봤습니다. 아베 내각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알고 나서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보다 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세계를 향한 문제들 생활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면 젊은이들의 다양한 의견이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양국의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는 것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자: 플로어에서 의견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한일경제협회 전무이사 허난정: 일본학생들의 발표와 아베 총리의 발언을 듣고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경제협력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일본에서 오신 손님이 있었습니다. 같이 우동을 먹으러 갔는데, 저는 김치 없이 우동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분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우동의 본 맛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비빔밥을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기를 좋아하지요. 미래회의에서도 한국 학생들은 여러 가지를 같이 하기를 원하고 일본 학생들은 학생으로서의 토론을 하자는 문화의 차이가 있고, 그 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7월 『경색된 한일관계 박태준이 대답이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반일감정이 심했던 시대에 일본의 협력을 얻어 제철소를 만든 사람입니다. 과거사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고 금방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박태준은 과거를 잊지는 말되, 미래지향적으로 진행해가자는 말을 했습니다. 젊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잘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회자: '한일학생회의'라는 단체에서도 오셨다고 하는데 단체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대학생의 교류활동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일학생회의 김수정: 한일학생회의는 한일 대학생으로 이뤄진 교류와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저희는 자매단체인 일한학생회의와 함께 매년 여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해 한국과 일본을 번갈아서 모이며, 올해는 제29회 동경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미래회의에서는 4박5일 일정인데 저희는 좀 더 길게 2주간 합숙하며, 주제에 대해 학습적인 측면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스카이프나 라인 등을 통해 8월에 있는 여름대회의 준비를 합니다. 그 외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한일 간 사안에 대해 함께 토의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와의 교류에 대해서는 한 번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현재는 다른 단체와의 교류는 없습니다. 내년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과 더불어 저희 단체도 30주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교류를 확대해나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이 미래회의 회장님과 연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이제 확대 활동을 위해 의견과 사람을 모을 때가 아닌가 합니다. 단체 간의 교류 등의 활동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성공회대 김대용: 학생으로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용기를 내어 말씀 드립니다. 한일교류도 정치적 문제와 제도적인 문제를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피할 수 있더라도 언젠가 다시 뭉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역사문제와 언어문제에 대해 의견을 말씀 드리면, 일본의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도 일본과 한국의 역사에 대해 한국은 제대로 배우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가 간 감정마찰을 방지하는 정부의 태도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의 기술이나 마스크 보도를 배우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각 국가가 제3자의 의견을 배우고 세계인의 한 명으로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언어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화된 토론을 위해서는 배울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저 흥미위주로 다가가는 교류는 조금 위험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자: 미디어 역할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곳에 참여하신 저널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본경제신문 우치야마: 미래회의의 여러분, 8월 대전에서의 세미나를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에도 큰 감명을 받았고 오늘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현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분석하고 과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몇 가지 코멘트를 드리면, 먼저 언어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한일교류, 외교 등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국장님, 과장님 등 계시는데 한국어를 못합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일본을 담당하는 분은 일본어를 매우 유창하게 하십니다. 학술 세미나를 열어도 일본어가 유창한 분들이 많습니다. 간단하게는 사실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세미나의 수준이 낮았는가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끼리 교류할 때에도 이런 현 상황 속에서 과제를 해결하면서 수준을 높여 가는데, 통역하는 한국학생들의 부담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어떤 자료를 만들 수 있을지, 서로의 능력을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하며 노력한다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어가 안 되도 한국을 공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외무성에서 말씀 드리면 한국어를 못한다고 외교협상의 레벨이 낮은가 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어를 못해도 한국과 대등한 교섭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발신에 대해서는, 한일미래회의의 특징을 살리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 특징으로는 고교생 때부터 함께 했다는, 이미 친구라는 점이 큰 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역사문제나 영토문제도 친구니까 이야기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으므로, 그 곳에서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점점 마칠 시간이 되어 제가 역사문제에 대한 간단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학생이고 자유롭기 때문에 자신과 극단적으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제가 대학생이라면 재특회의 혐한시위나 위안부의 수요 집회에 가보고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 하는지 들어볼 것입니다. 타인의 주장이나 한두 가지 역사적 사료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여러 의견을 들으며 스스로 생각해봐야 하겠습니다. 나라와 역사와 상대국에 대해 자기 스스로의 신념과 가치관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양기호: 다시 한 번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